흠있는 의사표시, 그 법적효과

1. 非眞意표시 (제107조)

표시된 의사가 행위자의 진의와는 다른 경우
‘眞意’: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 / 특정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또는 하지 아니하
고자 하는 생각 / 표시된 대로의 법적효과를 받겠다는 의도
92다3670
92다41528
97누13962
眞意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표시임을 알고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에 구속 됨 (제107조1항 본문)
그러나 상대방이 眞意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2. 통정한 허위표시 (제108조)

무효
2000다65864
2000다24184
숨겨진 이면거래의 유효성: 93다12930
명의신탁의 경우

3. 제3자 보호

非眞意표시,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7조2항, 제108조2
항)
제3자:
문제의 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
전득자, 양수인, 담보권 설정자, 문제의 목적물을 압류한 압류채권자 99다51258
善意:
무과실 일 필요는 없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
입증책임 – 제3자는 善意였던 것으로 추정 (77다907)
허위표시를 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善意의 제3자로 부터 전득자가 惡意로 전득 한 경우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한 거래로 봄, 94다 12074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적용범위:
적용: 사법상의 의사표시, 의사통지 (최고 등), 관념의 통지 (채권양도통지 등)
不적용, 제한적 적용: 혼인, 입양, 화해계약 (제733조), 소송행위 (95다 11740), 私經濟主體로서가 아닌 행정기관의 공법상의 행위
착오의 뜻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불일치 함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 (84다카890)
‘표의자의 인식이 그 대조사실과 어긋나는 경우’ (71다2193)
동기의 착오: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고,
의사표시를 할지 아니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였던 때에 한 함. 2000다12259
상대방이 제공한 동기, 타인의 기망으로 인한 동기의 착오 – 상대방 보호 불필요, 표의자 보호의 필요
장래의 사태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경우 93다24810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것
당사자간의 이익형량, 이해조정의 필요 – 취소권의 소멸, 배제
착오로 인한 계약이 다른 사유로 해제되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능 (95 다24982,24999)
입증책임의 분배 (착오의 중요성 / 표의자의 중과실)
취소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선의의 제3자 보호
착오로 인한 행위였음을 모르는 제3자
착오를 이유로 그 행위가 취소 되었음을 모르는 제3자
입증책임: 표의자 보호 v. 제3자 보호

5.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상대방에 의한 사기, 강박
2000다54406 (교환가치에 대하여 침묵을 지킨 경우)
99다55601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96다41496
효과

취소가능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75다533
적용의 한계, 소송행위 (96다35484), 가족법 상의 행위 (제816조 제3호, 제823조)